

행복의 추억에 취했던

어느 시월 멋진 날 펼쳐진 가을 축제 제 21회 오륙도평화축제가 막을 내렸다. 자유, 평화, 화합을 노래한 축제의 여운이 몸에 밴 화약 냄새처럼 아련히 남아 있다. 내년을 기약하며 사진으로나마 그 날의 추억을 되짚어 본다.

사진 촬영=전소진 주무관
(남구청 문화체육과)



제12회 주민자치회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용당동 민들레 풍물패가 신명 나는 농악놀이를 하고 있다.



전통성년례 행사를 가지는 남구의 청년들.



개막식 초대가수 박미경의 역동적인 무대로 축제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평화토크콘서트 모습.



축제 연계 행사로 마련된 제4회 부산남구평생학습박람회에서 양지골사랑회가 추억의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남구 17개 주민자치회에서 1년간 갖고 닦은 솜씨를 자랑하는 제12회 주민자치회 동아리 경연대회가 열리고 있다.



관람객이 스웨덴적십자아전병원 사진전을 감상하고 있다.



● 제32회 오륙도 사랑걷기 축제

참가 안하면 스푸트, 걸으면 그웬~잇!

제32회 오륙도사랑걷기축제가 제21회 오륙도평화축제와 연계해 지난 21일 열렸다. 가을단풍 유혹을 이겨낸 남구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여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운포체육공원 6.5km를 돌며, 쉬멍, 걸으멍했다. 백운포에 마련된 경품추첨이 걷기축제의 아름다운 대미를 장식했다. 참가자 전원이 냉장고, 자전거 등 생활에 필요한 세간을 챙기는 행운을 누렸다.



걷기 참가자들이 용호동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상부체육공원)를 빠져 나와 '6.5km 대장정'에 나서고 있다.

백운포체육공원에서 진행된 경품추첨에서 자전거를 받고 좋아하는 가족 참가자.



● 제8회 평화공원 국화전시회 ●

국화꽃 향기 가을바람에 실려

서릿발 추위에도 굴하지 않는 곳곳한 지조와 인내의 상징 국화가 평화공원에 만개했다. 제21회 오륙도평화축제에 맞춰 제8회 평화공원 국화전시회가 11월 12일까지 열린다. 일몰 이후에는 야간 조명을 사용해 낮보다 농익은 분위기가 연출된다.

국화향기는 머리를 맑게 하고 예민한 심신을 달래기 좋아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 시간을 투자할 만하다.



평화공원에 전시된 국화작품들. '국화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